

# 광주~대구, 목포~제주, 목포~군산 철도 추진된다

### 주승용 “교통연구 3개 노선 용역”

### 지역 차별 탈피·국토 균형발전 기여

국토교통부가 목포-제주, 광주-대구, 목포-군산 철도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철도노선’에 따르면 호남권에서는 호남-제주 해저터널, 광주-대구 철도, 군산-목포 철도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철도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고시될 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이 연구용역에는 이같은 호남권 3대 철도사업이 포함됐다고 주의원은 전했다.

광주~대구 철도의 경우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이번엔 새롭게 검토되는 사업이다.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해인사-대구 구간 총 191.6km를 잇는 안으로 총 사업비는 4조 898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부선·호남선·경전선·전라선 등과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서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제주 해저터널 건설은 전남도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목포에서 해남과 보길도,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167km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B/C가 0.78로 호남권 SOC로는 비교적 높게 나왔고, 철도 전문가들도 해양문화 관광 및 녹색산업의 호남경제권과 고품격 관광레저산업의 제주경제권이 연계시켜 21세기 신국가성장축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목포-해남 구간 지상 66km와 해남-보길도 구간 28km는 교량으로 있고,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73km 구간을 해저터널로 잇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4

조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군산-목포 철도는 전북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 구간 총 141.4km를 잇는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98.3km)과 장항선(온양온천-군산127km)과 연계돼 호남권과 서해 수도권 간 물류 수송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비는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5~2015년)의 제1차 수정안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2010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수립 시 제외됐다.

주 의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연말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수립될 예정이다”며 “그동안 호남 철도사업은 눈물의 호남선이라고 비유될 만큼 지역차별의 상징과도 같았다. 호남권이 지역차별과 개발 소외를 벗어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3개 철도사업이 반드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 ‘일자리 영향평가제’ 도입 전남도, 창출효과 등 분석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영향평가제는 전남도 전 부서 5억원 이상 예산사업과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자리 창출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분석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서의 사업을 연 2회 심의한다. 상반기에는 결산과 연계해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예산편성과 연계해 평가한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설계돼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해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부서별 성과관리(BSC) 평가자료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직원,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시 부적절 조치에 장수천 물고기 폐죽음”

광주시의회 문태환(새정치·광산2)부의장은 11일 “광산구 산정동 장수천 일원 물고기 폐죽음 사건은 광주시가 악취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연휴가 시작된 지난 6일 장수천 일원에서 물고기 10여 마리가 폐사했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 분석 결과 물고기 폐사 원인은 수중 용존산소(DO) 농도가 1.9~4.0ppm 이하로,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광주시는 이미 8월 초 장수천 일원의 악취가 우선시 심해졌다는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육안검사를 했을 뿐 근본적인 오염원을 찾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생태하천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꾸준한 관리와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논란·분쟁 광주시 현안 취임 100일 이내 매듭”

### 윤장현 시장 밝혀... 비엔날레 임시 대표이사 체제로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100일(10월 8일)이전까지 논란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현안을 매듭짓고, 속도감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시장은 11일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남을 갖고 민선 6기 각종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시장은 12일 퇴임하는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 이사의 후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18일로 예정된 비엔날레 이사회에서 비상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정상화안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 대표 이사 체제로 꾸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또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2차레나 거취를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화된 것이 없다”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활동이나 하는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 조만간 강도높은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관련, 12월까지 산하기관 22곳(공사·공단 4곳, 출연기관 11곳, 기타 7곳)에 대해 조직, 경영, 인사, 회계 등 전반적인 경영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민선 5기 때 시작된 각종 소송

과 관련해서도 실의 등을 꼼꼼히 따져 빠른 시일 내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우선 국제적 사기논란이 일고 있는 3D컨버팅 한·미투자법인 겸코(GAMCO)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끌고 가서 위약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 회수액이 변호사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등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 오는 23일께 소송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는 미국측 파트너 기업인 K 2AM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싱가포르 중재센터 등에서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 가능계좌)로 송금된 70만달러에 대한 반환 소송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920만달러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윤 시장은 또 기부되지 못한 소송이 진행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연관돼 있는 만큼 사업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면서 “다만 맥쿼리와 제2순환 도로 소송에 대해서는 시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선거법 무죄와 몸싸움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던 중 인터뷰를 요구하는 기자들과 수행원들을 둘러싸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 2015 농업·2016 통합의학박람회 일정 확정

### 의학박람회도 국제행사로

‘2015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란 주제로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오는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관례 95만명을 목표로 장흥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남도는 11일 “2015 국제농업박람회,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 전남 대

표 국제행사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 일정 및 내용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제농업박람회는 2012년 국제행사로 진행해 24개국 420개 기업과 관람객 115만명을 유치, 농산물과 농기자재 판매로 188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 2015 국제농업박람회는 생명농업, 식품산업, 국제교역, 도농 교류를 아우르는 국제행사로 국비 24억원과 도비 57억원, 민자 2억원 등 총 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전남도와 장흥군이 2007년부터 지속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2010년부터 4년간 개최한 통합의학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심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40개 국가가 참가해 국내외 정보 교류와 전시, 진료, 체험 등 건강행사와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남도는 국비 57억원을 포함해 190억원 투입해 생산유발 2365억원, 부가가치 968억원, 3861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인친화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인친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이드를 레이저: 수주스팀, 아이솔 브리핑, 프락셀
- ③ 세오 레이저: 쉐닝맥스, 다리오우즈메오
- ④ 피부 미백: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레이저
- ⑤ 주름·출혈: 프락셀스팀, 울트라맥스스팀, 프랙토라 인트라라, 프락셀 메나
- ⑥ 모공: 엔티시, 프락셀5중
- ⑦ 비인: 네오모토, 지방흡입

[문의처]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문의처]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